식품포장재 위생안전성 관리에 대한 포장업계 시각

Viewpoints for Safety Management in Packaging Industry

김 종 현 / 율촌화학(주) 연포장 품질혁신팀 차장

식품안전관리 정책강화

최근 가공식품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당국의 식품안전관리 정책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식품포장재의 위생안전성 관리도 회사의 사활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관리 방식과 요구는 연포장 업계 전반의 처해진 여건을 볼 때, 다소 가혹할 정도의 책임만 요구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율촌화학(주)의 경우 식품포장재가 주력상품임으로 다른 업체들에 비해 빨리 위생안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생시험 및 잔류용제 시험 장비를 갖추고 관련 시험을 실행 관리하고 원/부자재 또한 선진국의 관리기준을 입수 그에 준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전반의 일반적인 수준을 볼 때, 이러한 관리체계는 관리비용 등 경제성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율촌화학 보다 앞선 식품포장재 위생안전성 관리시스템을 갖춘 업체도 있겠으나, 이 글을 빌어 율촌화학의 식품포장재 위생안전성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업계의 일원으로서 식품포장재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율촌화학(주) 관리 현황

율촌화학의 식품포장재 위생안전성 관리는 원부재료 안전성관리와 재공품 및 완제품 안전성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부재료의 위생안전성은 최초 적용 시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한 성적서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또한 원료의 중요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년1~2회씩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관리하는 것이 병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위생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해당 원재료 생산 시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물질과 허가된 물질을 List Up하여 사용 가능한 원료만 사용하여 생산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중 허용된 물질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Positive List 제도이며 사용을 규제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Negative List라 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중 Positive List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익히 알고 있다.

다음은 식품포장재 재공품이나 완제품에 대한 위생안전성관리는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업협회 식품포장재 잔류용제에 관한 자율규제에 준하여 관리한다. 다만 자가시험의 경우 그 주기나 적부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것은 법적기준 규격에 준하여 관리하다 보면 부적합품이 발생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다 엄격한 주기와 기준으로 관리한다. 또 자가시험만 시행할 경우 그 신뢰성이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제품의 경우 자가시험과 함께 법적인 기준과 주기에 따라 공인기관 시험을 병행한다.

그 밖에도 사안 사안에 따라 법적기준과는 별개의 시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경우를 다 열거할 수 없음으로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율촌화학에서 식품포장재 위생안전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업체들로서는 해당 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해야 하는 식품포장재 위생안전성 관리가 어려운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공 기관을 통해 식품포장재에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등재하고 관리하는 Positive List 제도가 도입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원료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조업계에서도 선진국에서와 같이 법적 규제에 앞서 자율적으로 사용금지 물질들을 정기적으로 List up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적극적인 위생안전성 구축의지 필요

규제에 앞서 선진국과 같이 체계적이고 System적인 식품포장재 원/부재료 위생안전성 관리가 선행되고 원/부재료 업계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위생안전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규제하는 모습을 보일 때, 현재와 같이 연포장 업체에서 모든 짐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 관련 업계 모두가 Win-Win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연포장 업계 스스로도 보다 안전한 식품포장재 생산을 위한 원/부재료 선택과 생산 공장의 환경관리, 설비관리 및 공정품질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o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